

■김옥선 고성군 이장단 협의회장

“주민 편익증진 위해 발로 뛰겠다”

여성으로 강원도내 최초

“여성인 최초라는 말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소처럼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여성인 이장단협의회장이 탄생했다.

고성군 이장단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총회에서 전임회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고성군 이장단협의회 신임회장으로 김옥선(60세, 사진) 거진읍이장단협의회 부회장을 선출했다.

고성군이장단협의회는 5개읍면 임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성군의 여러 단체들 중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신임 김옥선

회장은 춘천이 고향으로 거진읍에 정착한지 35년이 됐으며, 거진 9리 이장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독거노인들이 많은 거진 9리에서 쌀과 생필품 등을 차로 운반해 직접 집까지 전달하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자신의 일같이 세심하게 챙기는 등 주민들에게 ‘우리 이장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들을 귀찮게 할 정도로 주민

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수시로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장들이 대부분 남성인데 여성인 제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저의 모습을 주민들이 보시고 지금은 애로사항 등을 편하게 상담해 옵니다. 주민들께서

웬만한 남성보다 더 잘한다며 칭찬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거진 9리 이장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김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2천 시간이 상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고성군 봉사왕’ 상을 지난해 수상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회원

들과 화합하는 가운데 주민 자치 시대인 만큼 주민의, 주민에 위한, 주민을 위한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재 거진읍 여성자율방범대장, 고성군 여성자율방범대 사무국장,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가족은 남편 김창식씨(64세)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



■박춘옥 고성군 새마을부녀회장

“회원 단합·지역사회 발전 헌신”

다문화가정에 특별한 관심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운동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회원들과 단합해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성군 새마을부녀회 신임 회장으로 박춘옥(60세, 사진) 현내면 부녀회장이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고성군 새마을부녀회는 5개읍면 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봉사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의 각종 대·소사에서 굵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박 회장은 현내면 부녀회를 6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회원들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때론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단체를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포용력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다양한 사회 활동중에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5년째 펼치고 있는 ‘다문화가정 고향 보내 주기 운동’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낯선 한국땅으로

시집와 10여년동안 고향 한 번 가지 못한 외국여성이 대부분입니다. 1년간의 화장지 판매 등의 사업을 벌여 나온 수익금으로 다문화가정 중 1년에 1명을 선정해 고향에 보내주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새마을운동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을 보면서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며 스스로 몸을 낮추게 된다고 했다.

말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박 회장은 “36년동안 새마을부녀회를 위해 외길을 걸으며 헌신한 전임회장의 뜻을 이어 받아 회원 자발적 참여의식을 넓히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먼저 발벗고 나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현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현내면 청소년문화의 집 위원, 고성 갈래길 위원회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 이학봉씨(65세)와 1남 1녀.

원광연 기자



함명식 5급, 송용찬·정순정 6급 승진

고성군 지난달 30일자 공무원 48명 인사발령

고성군은 지난달 30일자로 함명식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을 5급 승진과 함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등 공무원 4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송용찬·정순정 씨가 6급으로 승진했으며, 김명준·이상협씨가 7급으로 승진했다. 또 김지영·이진희씨가 8급으로 승진했다. 다음은 인사발령 현황이다.(괄호안은 전직)

◆5급 승진 △함명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농

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6급 전보 △이수원 자치행정과 교육입교(주민생활지원과) △강기석 간성을 민원담당(자치행정과) △김용택 신성장개발과 해양심층수담당(자치행정과) △김응중 신성장개발과 기업유치담당(자치행정과) △최원복 거진읍 총무담당(자치행정과) △고미경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신성장개발과) △박귀태 경제도시과 교통행정담당(신성장개발과) △나명오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장(신성장개발과) △임준용 상하수

도시사업소 관리담당(경제도시과) △김순옥 거진읍 주민생활지원담당(경제도시과) △이형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환경보호과) △김선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농업기술센터) △함제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농업기술센터) △이창근 농업기술센터 경영정보담당(농업기술센터) △도민연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담당(농업기술센터) △김도영 자치행정과 교육입교(상하수도사업소) △이병운 신성장개발과 대외협력담당(간성읍) △어금숙 간성

읍 총무담당(간성읍) △김정인 자치행정과 교육입교(거진읍) △오제윤 현내면 산업개발담당(거진읍) △최정희 자치행정과 교육입교(현내면) ◆6급 승진 △송용찬 경제도시과 지역일자리팀장(자치행정과) △정순정 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 ◆7급 전보 △김명옥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정연배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최은경 현내면(주민생활지원과) △최낙현 현내면(주민생활지원과) △지정화 접경개발기획단(재무과) △최도선 재무과(신성장개발과) △이동식 기획감사실(신성장개발과) △김석중 신성장개발과(접경개발기획단) △김남정 관광문화체육과(간성읍) △어기양 기획감사실(토성면) ◆7급 승진 △김명준 토성면

(관광문화체육과) △이상협 간성읍(건설방재과) ◆8급 전보 △이승아 토성면(주민생활지원과) △김영주 주민생활지원과(고객봉사과) △허영지 접경개발기획단(현내면) △최은경 현내면(토성면) ◆8급 승진 △김지영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이진희 접경개발기획단(접경개발기획단) ◆9급 전보 △함지선 주민생활지원과(현내면) ◆기능 7급 전보 △최세환 고객봉사과(환경보호과) △임애자 신성장개발과(농업기술센터) △장재남 현내면(상하수도사업소) ◆기능 8급 전보 △최운삼 환경보호과(고객봉사과) △어미라 건설방재과(고객봉사과). 최광호 기자